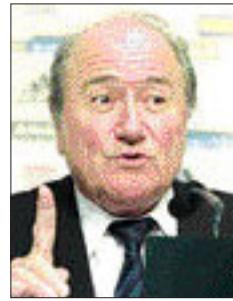




블래터 회장 “조국 스위스 경기 안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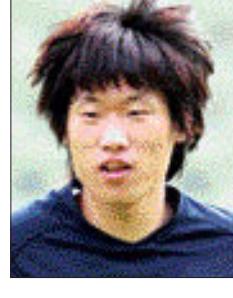


심판 중립성 보장 위한 배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4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시에 치러질 스위스-프랑스 전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12일 FIFA 수장 블래터 FIFA 회장은 자신의 국적인 스위스인 점을 감안, “프랑스와 첫 경기에서 심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위스 경기를 관전하지 않겠”고 말했다고 전했다.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힌 블래터는 “스위스와 프랑스 전 같은 경기에 사람들의 심장은 고동치겠지만 나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경기장에 가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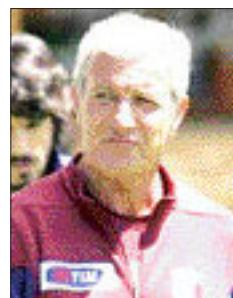
가장 결혼하고 싶은 태극전사 ‘박지성’



2006 독일월드컵 국가대표팀에서 20~30대 미혼여성이 가장 결혼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전국의 20~30대 미혼남녀 603명(남 297명, 여 30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6 독일월드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34.3%(105명)가 ‘결혼 배우자 감으로 가장 적합한 선수’로 박지성을 꼽았다고 12일 밝혔다.

박지성과 함께 임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영표(토트넘)가 여성 응답자 29.4%(90명)의 지지로 2위에 올랐고, 2002 한일월드컵 당시 1위를 차지했던 안정환(蔚山부르크)은 9.8%(30명)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쳐 3위로 쳐졌다.

伊 감독 “축구는 실력뿐 聖水 필요없다”
(성수)

4년 전 한일월드컵 축구에서 ‘아주리군단’ 이탈리아를 이끌던 조반니 트라파토니 감독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성수(聖水)를 지니고 다녔다.

하지만 트라파토니의 뒤를 이어 이번 독일월드컵에 출전한 마르첼로 리피 감독은 이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12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나와 E조 1차전을 앞두고 있는 리피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은 “성수는 물론 친구가 행운을 기원하며 준 포도주로 가져오지 않았고 일부는 마셔 버렸다”며 승리를 행운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년 전 트라파토니는 벤치에서 성수를 엎에 두었고,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는 첫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의 방에 찾아가 공동참회예절을 하듯 ‘고백’모임을 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9일 2006 독일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각국 응원단들이 각양각색의 응원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 효동초등 32회 정기 월례회=16일(금) 오후 8시 콩나물 삼겹살 523-2550

▲ 남평초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17일(토) 오후 10시 남평초교

영평관

▲ 정읍 호남고 동문회=22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011-9609-6780

향우회

▲ 재광 해남군 항우회 제 27차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15일(목) 오후 7시 꿈의 궁전 웨딩홀 연회장, 233-3909

모임

▲ 광주·전남 언론인회 월례회=15일(목) 오후 6시 화랑궁회관, 223-7340

모집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인명구조원 일반·강사과정 교

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영법 200m 가능자. 접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광주·전남 홈페이지(<http://gwangju.redcross.or.kr>), 문의 521-0545.

▲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과관센터 369-7005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상초 운동장 017-612-7695

▲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집 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접학습,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종 평일 오후 4시~밤 10시까지 운영 225-7224

▲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과정) 223-8529, 011-9712-4316

▲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페션·커튼·퀼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죽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쌍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봉사활동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워터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워터부모 모집 061-279-1225~6

▲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 불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 한국농촌공사 협평지사 농지임 대 신청자 모집=도시 거주자 및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 수탁 관리 <http://www.fbo.or.kr/061-320-5222>

▲ 한국웃음협회 회원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 한국복지재단 전남기정위탁 지원센터 워터 아동·부모 모집=친부 모의 사망·기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워터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워터부모 모집 061-279-1225~6

▲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100원회 회원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세)로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활동 할 사람. 016-362-2180, 652-8389

▲ 담양장애인봉사대(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중증재가장애인에게 봉사할 차량·후원·말벗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 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 푸른학당=온라인(검정고시 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 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전) 대표:(062) 515-4488

‘금호국제과학상’ 받은 美 인디애나대 마크 에스텔 박사

식물 생장 발달 호르몬 ‘옥신’ 역할 규명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마크 에스텔 (Mark Estelle) 박사는 ‘제 7회 금호국제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은 식물 생장발달 조절 호르몬인 옥신(auxin)이 식물의 발아와 생장, 노화 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규명한 점을 높이 평가해 마크 에스텔 박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식물호르몬 옥신은 1880년에 찰스 디윈과 그의 아들 프란시스 디윈이 이미 발견했으나 그 작용기작은 최근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에스텔 박사는 아기장대(Arabidopsis thaliana)라는 작은 식물에서 정상 식물에 옥신을 투여하면 리프레서(repressor)라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옥신과 결합, 리프레서를 파괴하고 그 결과 식물 생장관련 유

전자들이 활성화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에스텔 교수의 이 같은 업적은 기초과학뿐 아니라 식물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어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에스텔 박사는 캐나다 알버타 대학에서 식물 분자유전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MSU-DOE 식물연구소 연구원, 텍사스대학 생물학 교수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인디애나대학 생물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 과학연합회(AAAS)의 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금호국제과학상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매년 식물분자 생물학 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헌한 과학자를 뽑아 상금 3만 달러를 지급하는 국제학술상으로 지난 2000년 제

정돼 올해로 7회를 맞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양재동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에스텔 박사는 시상식에 앞서 제2차 국제작물 유전체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겸해 수상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



서울대 ‘토종박사’ 홍콩서 교수됐다



경계대 손병철씨, 시티대 조교수 임용

서울대 경계대는 올해 8월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손병철(41)씨가 홍콩시티대 조교수로 임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재무회계 분야를 전공한 손씨는 기존의 모형을 개선한 기업 가치 평가모형에 관한 박사논문과 뛰어난 영어실

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 대학 연봉체계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았다.

손씨는 “서울대 경계대의 우수한 교수진과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다”며 “평소 논문작성과 토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온 영어실력도 임용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곽수근 경계대 교수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토종’ 박사도 실력만 있으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다”며 “서울대 경계대는 제2, 제3의 손박사를 배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의사장, 日 ‘존경하는 기업인’ 2위에

일본 최고의 부자로 떠오른 한국계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일본 대학생이 존경하는 기업인 2위에 올랐다.

3위는 84표를 얻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4위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이 차지했다.

응답자의 27%는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한 후 창업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K-47 ‘소총의 아버지’ 미하일 칼라슈니코프 “테러범 무기로 전락… 발명 후회”

개인화기의 대명사인 러시아제 AK-47 소총의 개발자 미하일 칼라슈니코프(86)는 11일(현지시간) “독일군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AK-47 소총이 이제는 빙산과 추종자들의 손에 쥐어진 TV 화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들의 손에 들어갔을까 끄고 자문하곤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AK-47 소총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면서 “그들이 내가 개발한 소총을 가장 드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비난받아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유엔이 오는 26일부터 11일 동안 개인화기 거래금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이러한 한탄과 반문은 특히 날카롭게 다가온다. 그는 자신의 입장장을 담

6개월 만에 첫 결론을 개발했고, AK-47 소총은 2년 뒤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받아 소련군의 기본화 기로 채택됐다. AK-47 소총은 견고하고 단순한 모형이다 1분당 탄환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개인화기 대명사인 러시아제 AK-47 소총의 개발자 미하일 칼라슈니코프(86)는 11일(현지시간) “독일군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AK-47 소총이 이제는 빙산과 추종자들의 손에 쥐어진 TV 화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들의 손에 들어갔을까 끄고 자문하곤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AK-47 소총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